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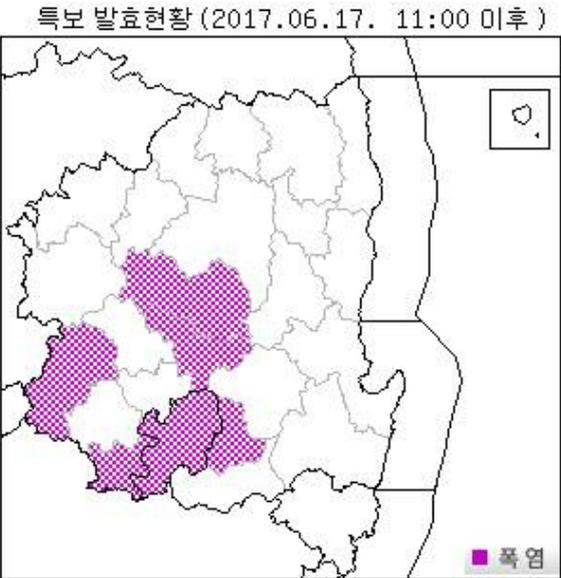
대구기상지청 브리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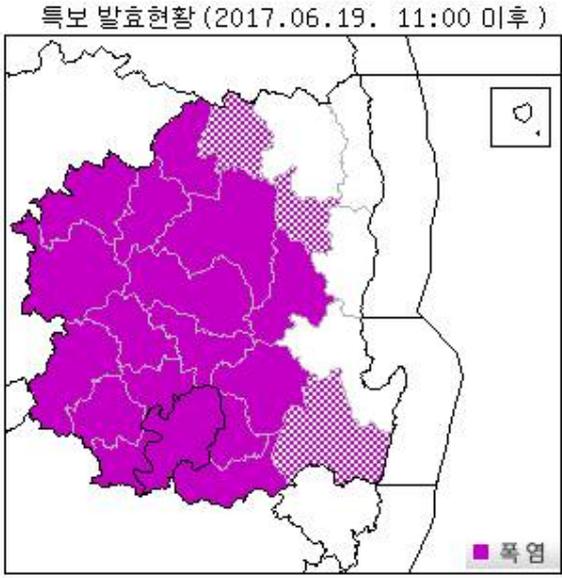
배포일시	2017. 6. 19.(월) 16:30 (총 2 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	담당자	과장 김희수 예보팀장 석인준
		전화번호	053-956-0365

최근 고온현상의 원인과 전망

- [대기 하층] 맑은 날씨(강한 일사) + 따뜻한 공기 유입
- [대기 상층] 고온건조한 공기 유입 + 기압계 정체(열 누적)
- 25일(일) 비 내리면서 더위 한풀 꺾일 듯!



6월 17일(토) 폭염특보 현황



6월 19일(월) 폭염특보 현황(16시 현재)

- 지난 17일(토) 경북남서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, 점차 확대되어 19일(월) 16시 현재 경북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임
- 특히,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높게 나타남



최근(6월 16~19일) 폭염 원인 모식도

- 이번 더위는 ①중국 북부 대기 중·상층에 위치한 고온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동·하강하면서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고, ②장시간 한반도 주변에 이동성고기압이 머물면서 대기 하층으로도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었으며, ③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일사로 인한 지면가열이 매우 활발했기 때문임
- 특히, 오호츠크해 동쪽과 중국 북부에 발달한 기압능으로 인해 동아시아 부근의 공기 흐름이 정체되고, 지상부근으로 열이 쌓이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고온현상이 유지되고 있음
- 당분간 이러한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, 지역에 따라서는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곳도 있어 매우 덥겠으니, 낮 동안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
- 이번 더위는 오호츠크해 동쪽으로 발달해있는 기압능이 해소되면서 동아시아 부근의 공기 흐름이 빨라지고,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25일(일) 전후,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됨